

교회에서 담임목사가 감당해야 할 사역은 사실 셀 수 없이 많고, 그중 하나라도 관심을 덜 가져도 되는 사역은 없다. 이런 여러 사역 가운데서도 목회자는 한 영혼을 구원하고 양육하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뒀야 한다.

그러나 제자훈련 목회를 하는 사역자도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해야 할 우선순위가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다. 특히 예배당 건축과 같은 재정과 인력,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영혼을 구원하고 양육하는 사역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재정과 인력이 그 일에 먼저 투입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판교 열린하늘문교회에서 만난 김태규 목사는 이렇듯 수많은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마치 서커스에서 접시 돌리기를 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한다. 여러 개의 접시를 돌리면서 하나라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모습과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의 모습이 그만큼 닮았다는 말이다.

하지만 김 목사는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사람을 세우는 훈련사역에 최우선 순위를 두려고 노력한다. 그가 어떻게 제자훈련 철학을 우선순위에 두고, 다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들어봤다.

### 은혜로 걷게 된 목회자의 길

김태규 목사는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 전통적인 교회 문화 가운데 성장했다. 늘 강단에 앞드려 기도하며, 엄격하고 철저하게 목회를 하려고 노력했던 아버지를 보며 자랐다. 김 목사는 자신이 “어릴 때부터 목사 흉내를 냈다”며 어린 시절부터 목회자의 길을 걷는 것을 당연히 생각했다고 회고했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 때 성경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계속해서 쏟아지는 체험을 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했다. 곧바로 고신대학교에 진학했으며, 이어서 고신대신대원에 진학하며 목회의 길을 차

근차근 걷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훈련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저 신실하고 철저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을 뿐이다.

그가 제자훈련에 대해서 듣게 된 것은 신학대학원 재학시절이었다. “그 당시에는 누구든지, 제 포래의 사람들은 신학교에 가면 제자훈련에 대해서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자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만 하던 김 목사가 제자훈련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것은 신학대학원 졸업 이후, 미국 바이올라대학교 탈봇 신학대학원으로 유학을 가며, 마이클 월킨스 교수의 제자도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부터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제자도에 대해서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다보니, 정말 목회의 본질이 제자삼는 사역이라는 사실이 이론적으로 정립되더군요.”

탈봇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학위(M.A.)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와 마산의 한 교회에서 약 3년간 부교역자 생활을 했던 그는 제자훈련에 대한 확신이 점점 강해졌다. 그래서 당시 부산 호산나교회에서 부교역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훈련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에 무작정 지원했다.

김 목사와 호산나교회는 소속 교단이 달랐지만, 다행히 당시 호산나교회는 합동, 합신, 고신 세 교단에서 모두 부교역자를 모집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홍준 목사 밑에서 제자훈련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전통적인 교회 울타리에서만 자랐고 부교역자 사역도 전통적인 교회에서 했지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제자훈련 하는 방향으로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는 지극히 평범한 목사였고, 지금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제자훈련을 알게 하였고, 훈련 사역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특별한 계기랄 것도 없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인도받았으니, ‘이게 바로 은혜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우선순위를 잊지 않는 목회자



김태규 목사는 고신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바이올라대학교 탈봇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학위(Th.M.)를 받았다.  
이후 부산 호산나교회에서 부교역자 생활을 하며 제자훈련을 제대로 배우고,  
판교 열린하늘문교회담임목사로 부임해 지금까지 섬기고 있다.





### 제자훈련을 제대로 배우다

김 목사는 제자훈련을 제대로 배운 통로로서 호산나교회에서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있었던 부교역자들의 제자훈련 워크숍 시간을 먼저 꼽았다.

당시 호산나교회에서는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모든 부교역자들이 다 모여서 제자훈련 워크숍을 진행했다. 부교역자들이 모두 모여 돌아가면서 다음 주에 할 제자훈련 교재 과를 인도하고, 다른 교역자들은 훈련생의 입장이 되어 함께 제자훈련 교재를 공부했다. 매주 2시간 가까이 행해졌던 이 워크숍을 통해 각 과에서 다뤄야 할 중요한 포인트를 짚기도 하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주기도 하며, 제자훈련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이었다고 한다. 김태규 목사는 제자훈련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부교역자 제자훈련 워크숍이야말로 가장 큰 도움이 된 시간이었다고 회고한다.

“저처럼 갓 부임해 제자훈련을 잘 모르는 교역자들은 1년 동안 이런 워크숍을 거친 후, 2년 차가 되어서야 제자훈련을 말할 수 있었어요. 제자훈련 인도자 지침서가 있었지만 거기에서 다룰 수 없는 실질적인 노하우를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워크숍을 통해 매 과를 잘 준비해서 제자훈련에 들어갈 수 있었죠.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소비적인 모임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 하나의 제자훈련 목회철학이 흐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김 목사는 호산나교회에서 4년간 이뤄진 워크숍과 직접 인도한 제자반을 통해 제자훈련 철학이 자신에게 공고히 세워졌다고 평가한다.

사실 제자훈련 철학을 CAL세미나와 기타 여러 서적을 통해서 배운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제자반 현장과 맞닥뜨렸을 때 잘 안 되고 힘들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김 목사의 경우는 이렇게 부교역자 시절에 제자훈련 하는 교회에서 체계적으로 훈련 받은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 건축보다 선교지의 영혼을 먼저 품다

김태규 목사는 4년간 호산나교회 부목사 생활을 마치고, 열린 하늘문교회로 부임하게 되었다. 열린하늘문교회는 1995년 서울 명일동에 개척된 교회였지만 김 목사가 부임할 당시에는 분당 야탑에 예배처소를 둔 상태에서 판교 종교부지에 새 예배당을 건축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최홍준 목사는 열린하늘문교회에서 김태규 목사를 청빙하러 온 장로들에게 ‘제자훈련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면 김 목사를 보내주겠다’고 말했다. 이미 김 목사에 대해 모든 것을 조사하고, 마음을 정하고 왔던 장로들은 제자훈련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김 목사를 청빙했다.

그렇게 해서 교단도 달랐던 열린하늘문교회에 2007년 첫 주일에 담임목사로 부임한 김태규 목사. 어떻게 보면, 김태규 목사가 열린하늘문교회에 부임할 당시, 가장 시급한 과업은 예배당 건축이었을 것이다. 김 목사가 부임한지 두 달 만에 판교에 종교부지가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교회의 재정과 관심을 예배당 건축에 집중해야 한다고 판단할 것이다. 그러나 김 목사는 다른 판단을 했다.

“제가 열린하늘문교회에 담임목사로 부임한 것이 우리나라 나이로 마흔일 때입니다.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과정에서 교회 건축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선교지에 먼저 교회를 건축하고, 그후 우리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찌 보면 알량한 양심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프놈펜에 자그마하게 교회를 개척하고, 이후 우리 교회 건물을 건축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그맣게 시작하려던 선교지 건축이 5억 원 이상 들어가는 큰 공사가



돼버렸어요. 교회당뿐만 아니라 유치원, 초등학교도 세웠습니다. 그 때문에 2,300평의 땅을 사고, 프놈펜 주변 재개발 신도시 쪽에 땅을 사서 건축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열린하늘문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단순한 ‘알량한 양심’ 정도로 시작한 일은 아니었다. 4기 제자훈련을 마치고, 구역장과 중보기도팀장을 맡고 있는 황해덕 집사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부임하신 후, 처음으로 등록한 1호 신자예요.

그때는 교회가 아직 야탑에 있을 때고, 판교 종교부지에 교회를 짓기도 전이었죠. 목사님이 100개 선교지 비전을 외치시더라고요. 놀라웠지만 훌륭한 비전을 가진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4기 제자훈련을 마치고 구역장으로 섬기고 있는 정보균 집사도 비슷한 말을 했다. “100개 선교지 비전을 말씀하시는데, 건축 때문에 자금 압박이 있을 텐데 캄보디아에 선교를 위한 학교와 예배당을 세운다는 말에 이 교회는 정말 비전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린하늘문교회는 건축을 진행하는 중이었지만 5억 원이 넘는 예산을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 투자했다. 또한 건축 자체에 매이기보다 더 나아가 선교지 100군데를 섬기자고 외쳤던 것이다. 현재 김 목사가 부임한 지 만 6년 만에 벌써 20개 선교지가 개척된 것을 보면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다.

어찌보면 무모해 보이기도 한 이 선교비전이 이후 김 목사의 목회에 큰 에너지가 되었다. 결국 이것을 계기로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로 탈바꿈되어 갔다. 교회가 건축 중에 있음에도 성도 수는 꾸준히 늘었다. 예배당 건축이라는 큰일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선교지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먼저 비전을 품었던 김 목사에 대해 성도들이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열린하늘문교회의 제자훈련에서 가장 큰 특징도 여름에 다녀오는 단기선교 여행이 되었다.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제자훈련생들이 단기선교에

**열린하늘문교회는 건축을 진행하는 중이었지만 5억 원이 넘는 예산을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 투자했다. 또한 건축 자체에 매이기보다 더 나아가 선교지 100군데를 섬기자고 외쳤던 것이다. 현재 김 목사가 부임한 지 만 6년 만에 벌써 20개 선교지가 개척된 것을 보면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다.**

참여한다. 교회가 제시하는 비전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훈련생 자신이 5박 6일정도 선교지를 갔다 오면 큰 은혜를 받기 때문이다. 교회가 세운 학교에서 아이들과 사귀고 주일학교 사역도 같이 하며, 몸으로 봉사하면서 선교적인 마인드를 배워 오는 것이다.

또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곳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보며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도 된다. 게다가 보통 제자훈련을 쉬는 여름동안 훈련에 대한 열정이 식는 면이 있는데,

선교지를 한 번 갔다 오면, 2학기 훈련에 상당히 큰 힘을 받게 된다고 한다.

### 제자훈련을 위한 토양작업을 하다

이렇게 건축보다 선교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실제로 김태규 목사가 부임 이후 가장 먼저 시작한 사역은 제자훈련을 위한 토양작업이었다. 김 목사는 부임 즉시 제자훈련을 위한 준비작업을 시작했다.

당시 열린하늘문교회는 독특하게도 교인들의 재적이 200명이 안되는데, 출석은 200명이 좀 넘는 교회였다. 교회에 등록은 하지 않고 설교만 듣고 가는 교인들이 많았던 것이다. 그만큼 구역조직은 약화되어 있었고, 교회 내에 소그룹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상황이었다.

김 목사가 제자훈련 토양작업을 위해 시작한 사역은 새가족 훈련이었다. 전교인이 모두 새가족훈련을 받아야 했다. 이미 신앙을 고백하고 수년간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도, 기초적인 복음의 진리를 다 안다고 전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 전교인이 같은 신앙의 기를 위에 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개신사정에 의해서 전교인 새가족 공부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 따로 5주 과정을 들어야만 했다. 김 목사는 적어도 훈련에 있어서만큼은 예외를 두지 않았다.

새가족훈련을 진행하면서, 김 목사는 중직자들에게 제자훈련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일도 해야 했다. 김 목사는 부전교회

박성규 목사로부터 얻은 아이디어를 통해 중직자들과 함께 『새들백교회 이야기』 책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김 목사가 직접 그 책에 대한 질문지를 만들어서 중직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습을 시켰다. 이 책을 중직자들과 나누며 관련 성경구절을 제시하고, 교회에 대한 인식을 하나로 모아갈 수 있었다.

“목사가 그냥 교회의 방향만 제시한다면 교인들은 그저 그 목사의 생각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책을 통해 함께 공부하고, 또 그와 연관된 성경을 보며 책의 내용에 대해 수궁하게 되니까 쉽게 제자훈련 철학을 공유할 수 있었어요.”

중직자들을 설득한 후에는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을 2007년 10월에 실시해 교회의 방향성을 잡았다. 그리고 그 다음 해 2008년 3월에는 남자 제자반과 여자 제자반 각각 한 개씩 총 두 반으로 제자훈련이 시작되었다. 1기 남자반은 당시 장로 4명과 몇 명의 안수집사들이 동참했다. 1기 여자 제자반도 열심히 교회를 섬기던 권사들과 집사들 그리고 이성옥 사모가 함께 참여해 진행되었다.

이렇게 중직자들로 이뤄진 제자훈련 1기가 진행되는 중에 2기 제자훈련을 받을 사람들이 거쳐야 할 과정인 ‘성경탐구반’(투란노 성경탐구 40일 사용)과 ‘성장반’(제자교회 성장반 교재 사용)이 개설되어 부교역자들에 의해 운영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2기 훈련생들부터는 이 두 과정을 거친 사람들을 중심으로 선발하게 되었다. 물론 선발기준에서 예외가 없지는 않았지만, 다른 교회에 비해 매우 짧은 기간에 제자훈련의 구조를 갖추게 된 셈이었다.

바로 이 기간에 종교부지가 확정되고, 설계 계약 등의 건축에 관련된 사역을 모두 준비하고, 건축의 첫 삽을 뜨기 전에 프놈펜 열린교회와 유치원을 설립하는 모든 일들이 이뤄졌다. 이 분주한 기간 동안 열린하늘문교회 제자훈련 토양작업의 모든 구조가 완성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김태규 목사는 제자훈련의 준비과정이 건축 때문에 지지부



진해지지 않고 짧게 끝날 수 있었던 것 역시 은혜이며, 모두 장로들을 비롯한 중직자들이 잘 따라준 덕분이라고 말한다.

김 목사는 “지나고 보니 은혜였습니다. 성도들이 저를 신뢰해 주셨고, 중직자들이 함께 동참해 주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었고, 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규 목사는 부임 이후 교회 건축보다 선교지를 먼저 섬기자는 결단은 ‘알량한 양심’이었고, 새로 부임한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교회의 변화를 주도한 것은 자신의 리더십의 영향력이 아니라

어린 목사를 중직자들이 잘 따라준 덕분이라고 평가한다.

제자훈련 시간을 통해 훈련생들이 변화를 경험하는 것도 인도자의 노하우가 아니라 그저 은혜 일뿐이라는 것이다. 대부분 여자 성도들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마련인 다른 교회와는 달리, 열린하늘문교회는 남자 성도들이 사역의 중심을 잡고 활동하고 있다. 이런 교회를 일궈낼 수 있었던 이유도 김 목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

## FM대로 진행된 제자훈련

이미 장로, 안수집사, 권사 등 교회에서 중직자로 세워져 있는 사람들을 모아 1기 제자훈련을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그러나 이전까지는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도 서로에 대해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성도들이 매주 모임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한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자, 힘들었지만 모두 열심히 참여해주었다고 한다.

김 목사는 특별히 제자훈련에서 “눈물이 많았다”고 회고한다. 비록 처음 시작하는 제자훈련이었지만 그 시간에 그만큼 훈련생들이 마음을 열고,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며 함께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이는 제자훈련이 이 교회에 뿌리내리는 데 중요한 기틀이 되었다고 한다.

제자훈련을 계속해 가면서 훈련의 은혜는 더해져 갔다. 특히 자칫하면 딱딱하게만 느낄 수 있는 제자훈련 교재 2권 <아





김 목사는 제자훈련을  
“FM대로 진행했다”고 말한다.  
너무 쉽게 훈련하고 쉽게 리더를  
세워서는 안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훈련의 강도가 약하면 약한 리더가  
세워지고, 결국 소그룹이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의 교리공부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얻게 하였고 김 목사는 “2권을 통해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고 말한다.

5기 제자반을 수료한 김국진 집사는 제자반 때 받은 은혜를 되새김질하며 계속 누리고 싶다는 생각에 자기가 과제로 제출했던 것을 책으로 만들기까지 했다. 김 집사의 과제물 책자를 넘겨보면 제자반 안에서 어느 정도의 영적 교감이 일어났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김 목사는 처음 제자훈련을 시작한다고 해서 훈련의 강도를 느슨하게 하지 않았다. 김 목사는 제자훈련을 “FM대로 진행했다”고 말한다. 너무 쉽게 훈련하고 쉽게 리더를 세워서는 안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훈련의 강도가 약하면 약한 리더가 세워지고, 결국 소그룹이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양육과정, 제자훈련, 사역훈련 등의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리더를 세우기에는 현실적 상황이 허락하지 않았다. 기존의 소그룹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빨리 소그룹 리더를 확보해야만 했다. 그래서 김 목사는 사역훈련을 생략하고, 제자훈련만 마친 사람들로 구역장을 세웠다. 경우에 따라서는 훈련생이 구역장 사역을 병행하기도 했다. 이렇게 1년간의 제자훈련만으로 리더를 세워야 한다면 제자훈련의 강도를 낮출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지금도 열린하늘문교회의 제자훈련의 강도는 상당히 높다. 일례로 훈련생에게 매주 32과의 모든 참고도서를 다 읽고 독후감을 쓰도록 요구한다. 매주 D형 큐티를 제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네비게이트 60구절을 사용하는 암송은 매번 이전에 외웠던 구절을 누적해서 암송한다. 매일 새벽기도회 참석 여부도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훈련생이 새벽기도회를 참석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4기 남자 제자반을 수료하고 구역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세훈 집사와 정보균 집사는 자신들이 훈련받을 때의 일화를 이야기해 줬다. 4기 남자 제자반은 매주 제자반 시간마다 너무 분위기가 뜨거워서 거의 밤 11시 반이 되어야 끝나곤 했다.

“같이 훈련받는 집사님 중에 서울 종암동에 사는 신 집사란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제자훈련이 끝나면 그 밤에 차를 몰고 집에 들어가 씻으면 거의 새벽 2시 가까이 된대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 5시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러 판교까지 다시 오시더라고요.”

5기 제자훈련을 마치고 구역장으로 섬기고 있는 석경주 집사는 “교회의 모토가 ‘시냇가와 같은 교회’인데, 목사님이 정말 시냇가 같은 분”이라고 평가한다. 석 집사는 원래 제자훈련을 받을 생각이 없다가 거의 반강제로 시작한 사람이다. 훈련을 받은 것이 처음인데다가 과제도 너무 많아 힘들고, 남편도 믿지 않는 상황이라 초기에는 그만두고 싶은 유혹도 많았



다고 한다. 그런 그녀가 제자훈련을 수료하고 구역장까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제자훈련 하는 집집마다 돌며 식사와 교제를 같이 하는데, 김태규 목사의 집에서도 식사 대접을 받으며 거리감 없이 교제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컸다.

제자훈련을 자기 인생의 터닝포인트라고 평가하는 정보균 집사는 “이전에 새벽기도는 한 번도 자발적으로 나간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도전을 받게 되더군요. 저보다 나이 많은 집사님들이 오히려 과제를 더 잘 해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창피함을 느끼기도 했구요. 저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접대문화, 술 문화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훈련을 받고서는 술을 끊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정직하게 일하고, 정당한 수익을 얻는 것을 추구하게 됐어요.”

이세훈 집사는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구역장 사역을 병행한 케이스다. 그는 제자훈련을 통해서 열린하늘문교회의 가족이 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한다. 2010년 9월 입당후 2011년에는 판교로 이사 온 새가족들이 밀려들어와 자기가 맡은 구역이 어른만 30명이 넘기도 했다고 회고한다. 그런데 이 집사는 제자훈련과 구역장 사역을 같이 감당하는 것이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훈련을 받고 있었기에 그 일을 모두 감당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또한 맡았던 구역이 세 번이나 분가되는 과정을 통해 이 교회에서 영적 가족들을 얻었다고 고

백한다.

이렇게 온유함과 배려를 잊지 않으면서도 타협하지 않고 FM 대로 진행한 제자훈련을 통해 배출된 구역장들이 교회의 근간이 되어, 5기 제자반을 수료시킨 지금은 장년 출석 인원이 550명, 주일학교 학생들까지 800명을 넘나드는 교회로 거듭났다.

###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회

장년들을 향한 제자훈련 목회 외에도 특히 김 목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 문제다. 그는 대형 교회조차도 중, 고등학생들이 얼마 모이지 않는 현실은 분명 큰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한다.

“여력이 된다면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대안학교를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지에도 학교를 세웠는데, 여기라고 못 세울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꼭 크게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요즘 홈 스쿨링도 하는데.”

세속적 가치관에 입각한 교육열은 날로 높아만 가는데,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한국 교회는 재앙을 맞이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김 목사는 갖고 있다.

정보균 집사는 판교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이 교회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아이들을 위한 배려가 잘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교회가 판교시립어린이집을 위탁경영하는 것을 보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데, 시설과 기타 환경 등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깊은 배려가 느껴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열린하늘문교회의 건물을 둘러보면, 어른들을 위한 공간보다도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든다. 영아부실, 유치부실, 유년부실, 초등부실뿐 아니라 놀이방이 또 따로 있다. 건축 때부터 다음 세대 양육을 향한 배려가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앞으로 이 사역이 어떻게 한 단계 더 발전할지 기대가 된다.



“사실 제자훈련은 힘들죠. 제자훈련이 굉장한 에너지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자훈련을 하지 않으면 뭐 할 거냐는 거죠.  
혼자서 접시 돌리기처럼 동분서주 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성장할수록 제자훈련은 더욱 필요해집니다.”

## 남아 있는 도전

아직 열린하늘문교회의 제자훈련이 완전히 그 기틀을 잡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다. 바로 소그룹 리더(구역장)가 부족한 점이다. 열린하늘문교회 구역은 대부분 부부가 같이 모이는 구역이다. 그 때문에 남자 성도들의 리더십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지만 구역장 수급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부부가 다 훈련을 받아도 각각 한 구역씩 두 구역을 맡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사실 열린하늘문교회가 남녀 구역을 나눠 보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젊은 부부들이 많은 신도시 지역의 특성상 부부가 함께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나눠서 하면 여자 구역은 잘 되지만 남자 구역은 잘 안 되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이 낫다고 한다. 그렇기에 부교역자들과 제자훈련 비전과 사역을 공유하고, 아직 훈련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사역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미 세워진 리더들의 영성을 유지하도록 깨우치고 점검하는 사역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금년부터 사역훈련이 시작되었다. 김 목사는 아직 사역훈련의 모든 내용을 다루지 않고, 교회론만 다루는 사역훈련을 진행 중이지만, 이후로 제자훈련이 계속 진행될수록 사역훈련의 중요성은 더욱 크게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 목회의 비법은 결국 제자훈련

김태규 목사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사역들을 훈련된 평신도들이 함께 동역하며 이끌어 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지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 예배당을 짓기만 하면 양적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다. 김 목사는 6년 만에 예배참석 인원이 2.5배 이상 성장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새가족들이 처음에는 목사에 대한 호감, 좋은 분위기에 끌려 등록할 수도 있겠죠. 그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 것처럼 보

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목사의 교회가 아니거든요. 롤 모델이 되는 훌륭한 평신도 리더들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제자훈련을 통해 성장해야 하고 이렇게 세워진 롤 모델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그러므로 제자훈련은 목회에 있어서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훈련이 힘들고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말하는 목회자들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답한다.

“사실 제자훈련은 힘들죠. 매주 미리 교재 준비해야죠, 3~4시간 훈련생들 만나서 씨름해야죠, 과제 점검도 해야 하고, 행정적으로 할 일도 많아요. 그렇다고 설교나 심방 같은 것을 소홀히 할 수도 없습니다. 제자훈련이 굉장한 에너지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자훈련을 하지 않으면 뭐 할 거냐는 거죠. 혼자서 접시 돌리기처럼 동분서주 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성장할수록 제자훈련은 더욱 필요해집니다.”

김태규 목사는 올해 안식월을 얻어서 지난 6년간의 사역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사역을 돌아보니 말씀과 기도를 더욱 강조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안식월이 끝나면 새벽기도와 큐티를 전교인 차원에서 강조해 말씀과 기도 위에 교회를 세우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한다. 김 목사는 결국 교회가 커지고 사역의 수가 많아질수록 기본을 충실히 하는 사역이 중요함을 깨닫곤 한다.

이제 열린하늘문교회가 김태규 목사의 바람처럼 제자훈련의 기틀 위에서 선교지향적인 교회,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지금까지 건축뿐만 아니라 교회 내의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영혼을 구원하고 양육하는 사역에 우선순위를 잊지 않았던 것처럼, 이후에도 이 원칙에 의해 동역자들이 더욱 많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로 우뚝 서기를 기대한다.  (박희원 목사)